

# 전주한옥마을 쌍샘 복원 착공

### 시, 내년 4월까지 5억원 투입 쌍샘우물 복원·광장조성 사업 추진

전주한옥마을 인근 주민들의 생명수였던 쌍샘을 복원하는 공사가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는 '전주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조성 사업'에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쌍샘 우물 복원 '착공' 위치도.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목대 인근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과거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라진 쌍샘 우물을 복원하고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기는 광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원에는 원형우물과 사각우물 등 2개의 우물이 복원되며, 700㎡ 규모의 광장도 생긴다.

시는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첫 삽을 뜨는 방침이다.

설계에 따라 완산구 교통 49-6번지

주변에는 실개천과 인공폭포도 조성되며, 교목 47주, 관목 155주, 초화류 500본 등도 식재된다.

시는 쌍샘 우물이 복원되면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를 지향하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옥마을 관광객의 외연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과거 한옥마을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쌍샘 우물을 한옥마을의 새로운 역사·전통문화자원으로 복원해 옛 생활풍습을 재현할 계획에 있다"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벽화로 유명한 지만마을에서 전주향교 방향으로 위치했다고 알려진 쌍샘은 옛샘과 아랫샘이 나란히 있다 해서 쌍샘이라고 불렀다.

/김윤상 기자

#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이용자 95% "만족"

### 이용자 757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지역서점 이용 '늘었다' 87.6% 응답

전주시가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이 이용자들로부터 큰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이용자 7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5%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32곳의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받아 할인받고, 12개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할 때마다 1권당 50포인트(원)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17일 시작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이용으로 도서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79.3%로 집계됐으며, 지역서점 이용이 늘었는지에 대



한 문항에서는 '늘었다'가 87.6%로 조사됐다. 또 향후 지역서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질

문에서는 97.5%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도서를 구입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64.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는 기존 온라인 서점 이용자의 지역서점 유입이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타의견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시행과 포인트 상환, 참여서점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가입자 수 5970명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이 기간 시민들은 총 4947건의 포인트를 사용해 5112만 5570원을 할인받아 도서를 구매하는 혜택을 누렸다. 또 지역서점 도서 매출은 2억5562만789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빛난 한 해 마무리

### 운영보고대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식 열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일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202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청소년안정장 집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위원(전주지역 초·중·고등학교장) 등 청소년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5개 기관, 10명) △우수 청소년안정장 유공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시상식 △센터 운영보고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기여한 문영미 커피문화아카데미 원장

이 정복도지사상을, △강민천 나무헤어 원장 △유진솔 흥시공 대표 △김유경 청소년상담사가 전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나무헤어는 지난해부터 25회에 걸쳐 37명의 위기청소년에게 무료 헤어컷 및 진로 상담에 힘써왔으며, 흥시공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직업인 멘토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다. 또 김유경 상담사는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도왔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상에는 자립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한 최민지 양(20세), 정민서 양(19세)이, 상담체험수기 우수상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상에는 최소영 양(21세)이,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활동에서 성과를 보인 박지훈 군(16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에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 20명에게 졸업장이 수여됐으며,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선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사회가 함께 했기에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주지역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일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2021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식'을 개최했다.

# 전주시, 아중호수 수변탐방로 걷기 좋아졌다

### 총사업비 1억3900만원 투입 산책로 추가 설치공사 완료

아중호수 수변탐방로 중 일부 단절됐던 구간이 추가로 완공되면서 방문객들이 막힘없이 호수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총사업비 1억3900만 원을 들여 아중호수 산책로 추가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60m 구간의 수변탐방로가 조성됐지만 북동쪽 탐방로의 단절로 인해 호수 밖으로 돌아 나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를 줄이고자 추진됐다.

시는 약 93m 구간에 친환경 목재데크와 보행매트를 설치해 추가 탐방로를 조성했으며, 계단 위에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도 새로 만들었다. 향후 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중호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자체사업으로 아중호수 수변산책로 조성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원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호수 이용객이 호수 주변을 거닐며 호수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수변탐방로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봄·여름에는 수련과 부처꽃, 꽃창포를 감상하고, 가을·겨울에는 물억새 군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습지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극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에 아중호수 수변탐방로를 조성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아중호수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멋진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청년독립예술주간 '시간' 개최

전주지역 청년예술인들이 올해 창작 활동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예술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시청 강당 등 6곳에서 제2회 청년독립예술주간 '시간'을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전주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인 '전주청년예술시(점)

을 통해 선정된 19팀, 25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창작 결과를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선보인다. 장르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하다.

예술제는 4일 시청 강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캘리그래스 스튜디오 △뽕밭의 미술관 △소극장 용 △창작소

극장 △향유갤러리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간'이란 대중제와 동행·인상·다름·서사 등 네 가지의 소주제로 나눠져 청년예술가들이 꿈꾸는 전주의 모습과 예술가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호흡 맞춰 노래로

# 제5회

#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3시~6시

###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